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상식책들

짤막한 에피소드의 흥미위주 구성... 지식의 상품화 비판도

현재 서점가에는 '재미있는 상식'을 테마로 한 책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왜?》《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상식 속의 상식》《책 속의 책》《지구촌의 별난 이야기》《풀리지 않는 세계의 미스터리》《시험에 안 나오는 상식》《어, 그래?》《개미는 왜 힘이 셀까》 등이 그것.

독자성향 좇는 발빠른 상흔

이처럼 전문적 차원의 지식을 쉽게 풀어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긴 글을 읽기 싫어하고 감각적인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을 상대로 무게 있는 책을 내는 일이 출판사 입장에서 불 때 위험부담이 많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여권상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기간이 두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어차피 한두달이면 독자들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므로 감각적인 기획으로 책을 만들으로써 독자들의 이목을 끌어 한두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장삿속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 섭외 등 출판과정 일부를 건너뛰으로써 제작기간이 단축된다는 부수적인 잇점도 있어 출판사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데, 몇몇 출판사는 외국에서 출간된 책을 그대로 베껴내는 약삭빠른 상술까지 발휘하여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책을 살펴보면, 짤막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글로 엮여져 있으며 거의 예외없이 성(性)적인 소재를 중간중간에 섞어 독자의 시선을 끌도록 구성되어 있는 등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흥미위주의 구성으로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기에 이르렀다. 이에 출판계 일각에서는 '앉아서 하는 기획'에 의존해서 상업적 이익만을 노리는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발한 기획과 나름대로 내실을 기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도서출판 새로운사람들의 이재욱 실장

'재미있는 상식'을 테마로 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각적인 내용의 단편적인 글을 모은 이들 책은 지식을 흥미차원에서 가공, 상품화했다는 비난과 함께 기획의 다양성을 꺾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지식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 "도서관에 파묻혀 있는 고급지식을 일반 독자로 하여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식을 이처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지식 자체의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적지 않은 비용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재욱씨는 말끝에 "그나마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외국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 저작물들을 일부 수정하여 책으로 펴내는 출판사들과 지식을 유머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책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출판인의 소양 잃지 말아야

실제로 이들 출판물의 면면을 보면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등 제반 학문의 구석구석에서 일반인의 흥미를 끌 만한 사실과 통계를 끌어내어 상품화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자는 죽은 후에도 8시간 동안은 섹스가 가능하다' '스코틀랜드인들이 킬트를 입는 이유' '개미집은 홍수에도 괜찮을까' '북한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돈벌기 위한 마녀사냥' '존 레넌 살인사건에 관한 미제' '버번과 스카치의 차이' 등과 같은 주제들이 그것.

이 가운데는 '죽지 않는 플라톤' '말의 과학을 세운 소쉬르' 등 형이상학적 주제를



서점가의 '상식'들은 기획의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한편, 알파한 지식의 상품화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쉽게 풀이해놓은 의미있는 저작들도 눈에 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능력, 기막힌 우연, 미스터리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증명된 사실인 양 수록하고 있는 출판물도 있어 해악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출판이 서점들의 호응과 맞물려 차츰 확산되고 있는 현 추세에 대해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은 염려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식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는커녕 경박한 태도로 지식을 상품화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

전사장은 출판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강조하면서 내실있는 출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일부 단편적인 지식을 '상식'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그 방면의 학문지식의 전부인 양 호도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출판 깊은샘의 박현숙 사장은 이에 대해 보다 중도적인 입장이다. 가벼운 책들이 범람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출판계가 지나치게 단순

한 기획으로 일관해온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소재를 발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기획의 다양성 측면에서 참신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내용면에서 부실한 책들이 다수 출판됨으로써 독자들이 식상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기'는 독자들 입장에서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박현숙 사장은 출판에 있어 상업적 성공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출판인들이 이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유형의 출판물이든간에 출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 한동림 기자